

가짜 의사 박지은

이영준(이미지비평)

어릴 적 하던 놀이 중에 병원놀이라는 것이 있었다. 한 사람은 환자가 되어 팔을 내밀면 또 한사람은 의사가 되어 청진기를 목에 걸고 진찰도 하고 약도 주는 놀이다. 병원놀이를 하면서 개복수술도 했으니 그것은 단순한 장난은 아니었던 것 같다. 모든 아이들의 놀이가 그렇지만, 그것은 어른이 되서 맞닥뜨릴 현실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다. 어렸을 적 하던 소꿉놀이는 가사노동의 시뮬레이션이었으며, 장난감 총과 탱크로 하던 놀이는 전쟁의 시뮬레이션이며, 인형 옷 입히는 놀이는 남들 앞에서 멋지게 보여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옷입기 전쟁의 시뮬레이션인 것이다. 예술도 현실의 축소판인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시뮬레이션이다. 예술의 시뮬레이션은 현실생활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이 아이들 놀이와 다를 뿐이다. 그러나 예술의 시뮬레이션은 오히려 현실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 혹은 해 볼 수 없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해본다는 점에서 현실과 멀면서도 사실은 현실에 대해서 강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술이 어떤 언어를 가지고 어떤 지식을 꾸며내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 결국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지식에 대한 여행연습을 통해 그 지식이 현실에 맞는지, 편차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예측가능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지은이 하는 작업은 의학 시뮬레이션이다. 박지은은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 이상으로 의학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수술도구나 알약 같은 의학적 오브제들을 사랑할 뿐 아니라, 특정한 약이 인체의 특정한 부위에 작용하여 특정한 효과를 내는 기전까지도 사랑한다. 의학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물질적인 데서부터 개념적인 데까지 골고루 퍼져 있다. 의학이라면 어릴 적 병원 입구에서부터 풍기던 포르말린 냄새에 들어 있는 차가운 공포거나, 그 반대로 의대 가는 것들은 돈 보고 가는 것이라는 편견이나,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박지은은 의학을 몽땅 사랑한다. 그러나 그녀가 사랑하는 의학은 과학 자체라기보다는 과학과 예술 어딘가 중간 쯤에 있는 것이다. 그 중간이라는 지점은 의학이 아직은 제대로 된 과학의 형태를 띠기 전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다.

근대 과학이 나타나기 전 옛날에는 의학의 외양은 과학이라기 보다는 고문술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디드로의 <백과전서(L'Encyclopedie)>(1750-1770) 중 치료술편을 보면 의학 용구와 그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그림으로 도해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 의술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원인을 밝혀내고, 환자에게 고통을 적게 주면서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라는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는 느낌이 든다. 그도 그럴 것이, 마취제도 나타나기 전에 눈 수술하는 그림을 보고 누가 과학이라고 하겠으며, 자궁에 흉측하게 생긴 갈고리를 넣어 뭔가를 긁어내는 수술장면을 보고 자신의 가족에게 그런 수술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아마도 그 당시의 수술은 환자가 어차피 죽을텐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로 수술이라도 받아보자고 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주관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예술의 담론과 사람 잡는 고문술에 가까운 18세기의 의학을 '진정한' 과학이라고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재료에 대한 과감한 처리, 다양한 개념적 논거들의 경쟁, 가학적/자학적 취미의 교차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술과 가깝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의학이 예술과 닿아 있는 또 다른 지점은 비밀이라는 점이다. 아도르노는 예술의 핵심개념 중의 하나로 비밀 혹은 수수께끼를 들었는데, 이는 예술이 금새 읽혀지는 내러티브가 아니라, 끊임 없이 비밀을 던짐으로써 쉽게 동일화되지 않는 차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의학은 인체의 비밀을 풀어서 질병을 치료하려는 학문이자 활동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외한에게는 그 용어나 기전들은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또 다른 비밀의 영역이다. 이때 의학의 차가운 시선에 의해 발가벗겨지는 자연의 비밀과, 환자를 포함하여 문외한에게는 절대로 알려지지 않는 의학적 담론의 비밀은 차원이 다르다. 환자는 사실 의사가 차트에 휘갈겨 쓰는 간단한 약이름도 읽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아스피린 두 알이라고 해도 말이다. 박지은이 다루는 것은 사실로서의 의학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의학이라는 담론과 표상체계의 비밀일 것이다. 물론 그녀를 이 비밀로 끌어들이는 것은 의학의 매력이다. 의학의 이미지와 색깔, 냄새, 소리에 매료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녀는 분명히 대단히 독특한 취향을 지닌 작가임에 틀림 없다. 사실 예술의 소재가 다양해진 이 마당에 의학에 매료된 작가가 나왔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러나 박지은이라는 작가의 존재를 단순히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거창하게 보아 예술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으로 본다고 해서 무리는 아닐 것이다. 예쁜 꽃이나 인체의 미, 신비한 풍경이나 마음을 울리는 시구절 같이 전통적인 예술의 소재가 아니라, 과학과 그 담론, 그리고 그 가시적 결과물이라는 객관적이고 생똥 맞은 것들에 대해 이끌린다는 점에서 이것

은 분명히 새로운 종류의 시각적 욕망이라고, 심지어는 새로운 조망체제(scopic regime)라고 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즉 의학적 이미지는 즐기거나 감상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진단하고 분석하고 처방하라고 있는 것인데 박지은은 이것을 시각적 즐거움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으니 이는 분명히 기존의 미술에서 볼 수 있는 태도는 아니다. 박지은의 작업을 두고 미술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어색할 정도다. 아마도 그것에 매핑을 부여한다면 과학의 스펙타클에 대해 시각문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아마도 의사(pseudo)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녀가 병을 고치지는 않는다. 예술가인 그녀가 의학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의학이 병을 고치는 그 작용, 물질과 개념의 오케스트레이션에 흥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의학적 물질들과 개념들을 가지고 작업할 때, 보는 이는 한 가지 질문에 부딪히게 된다. 의학이라는 과학적 담론과 예술적 담론은 얼마나 서로 만나는 것일까? 과학의 담론은 예술의 담론을 배제하는가, 아니면 한쪽이 다른 한쪽을 포괄하는가? 거기에는 의학과 예술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가시화(visualization)라는 계기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의학, 예술 양자 다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대상을 가시화하는 활동이다. 박지은을 매료시키고 있는 것은 의학에서 사용되는 다양하고 기기묘묘한 가시화의 장치들과 전략들이다. 육안에 의한 관찰에서부터 엑스레이를 거쳐 컴퓨터 단층 촬영에 이르기까지, 의학적 가시화의 전략과 장치는 실로 다양하다. 그 장치들의 작동방식과, 그것이 생산해내는 지식의 내용은 일반인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단지, 대단히 그릇된 방식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폐를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할 수 있는 눈을 기르기 위해 의대생들은 수천장의 사진을 보고 병을 가려내는 시험을 치른다. 텔레비전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키며 저 시커먼 부분이 암세포라고 말 하면 방청객들이 공포에 질려서 오~하고 놀라는 그런 단순한 가시성이 아니라 끊임 없는 트레이닝을 거쳐서 생겨나는 가시성인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의학적 가시성에는 관찰자의 눈을 장치와 대상에 맞추기 위한 지난한 역사적 과정과 투쟁들이 들어가 있다. 그런 미묘한 가시성이 박지은의 작업의 내용이다. 그녀는 병원의 수술실을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하여 작업에 쓰고 있으며, 유명한 외과의사의 수술시연장면을 보기 위해 뉴욕 까지 가서 뉴욕대학 병원에서 열린 시연회 장면을 비디오로 녹화해 오기도 했다.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그녀는 의학적 기호에 미장센을 부여한다. 그리고 과학을 감각화한다. 그러나 그 감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적 감각이 아니라 의학과 예술 중간 썸 어딘가에 있는 신기한 감각이다.

그러므로 그녀의 작업이 꼭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전시돼야 할 필요는 없다. 병원에 전

시되어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단, 병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환자들은 우리가 30년 전에 내던져 버린 그 낡은 미술의 개념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자신들이 다루는 이미지가 감각의 극한을 달리는 첨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기는 하다. 그들은 자신이 만드는 이미지에 대해 의학적 지식으로 해석하고 진단과 치료의 실제적 목적에 사용하고 있으나 자신이 만든 이미지의 의미구조나 감각적 측면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관심도 없는 것이다. “그들은 행한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 한다”. 반면, 박지은은 의학의 비밀을 다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시각화한다. 그 시각화에서 초점은 무엇인가? 내러티브가 행동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사의 진료는 전시와 퍼포먼스의 흥미로운 결합이다. 박지은이 관심 있는 것은 바로 이 결합이다. 뉴욕대학병원 의사의 공개강연장면을 비디오로 찍어온 것도 의학에 내재돼 있는 전시와 퍼포먼스의 결합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의 작품은 퍼포먼스의 측면을 담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그녀의 작업의 특징은, 수행성을 근간으로 하는 의학에서 수행, 즉 동작을 빼버린 정지되어 있는 미장센으로 바꿔 놓는데 특징이 있다. 신체에 대한 과학인 의학은 박지은의 작업에서는 도표와 기호의 과학으로 바뀐다. 그것은 환자의 몸 속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의학이라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회로 안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에 역시 드러나지 않는 담론과 기호를 가시화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그런 면에서는 박지은의 작업은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뇌의 구조나 수술도구 등 의학을 가시화하는 작업을 하는 영국의 작가 애니 캐트렐(Annie Cattrell)의 작업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항상 환자의 시선만 마주 대하던 의학이 미술의 시선과 만날 때, 의학은 변모할 것이다. 그것은 바라만 보는 과학에서 바라보여지는 과학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직접 과학과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과학은 대상을 관찰하는 활동일 뿐 아니라, 메타 과학, 혹은 다른 분야의 시선과 담론에 의해 관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박지은은 애정 어린 시선으로 의학을 관찰하고 있는 아주 드문 시선이다.